

목어

노자와 공자를 받기며

"심심풀이 땅콩이라 생각하고 <노자를 웃긴 남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라"며 어느 분이 권하셨다. 요즘 노자, 공자 등 동양고전 붐의 중심에는 도올 김용옥씨가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저자는 도올을 '웃기는 남자'라고 마구 몰아대고 있다. 노자 <도덕경>에 대한 도올의 해석이 황당할뿐더러 TV에서의 강의 태도 또한 마뜩잖다는 clouds(저자 이경숙씨의 인터넷 ID)는 그 도올의 강의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책을 썼다고 한다.



"도올의 강의 가지고 얘기하는데 심각하거나 진지할 필요가 없고, 뭐 확실적인 격식까지 갖출 이유도 없이 보인다"고 서문에서 밝힌 저자가 '진짜 골 때리는 쇼' '무식하면 부지런하지나 말아야지' 등 인터넷 채팅 언어로 쏟아내는 그 거친 '입심'이란... 그런 입심으로만 따지면 구름(clouds)씨가 도올 선생에 비해 단연 한수 위로 보인다.

그 동안 동양학계에서는 TV 도올 강의에 대한 열마간의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다 이번에 영문학자 서지문 교수가 요즘 방영되는 도올의 '논어 강의'에 열마간의 브레이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못난 시류 탓에 억울하게도 '고리타분'으로 분류, 곱판내 나는 창고 속에서 잠잘 뻔했던 노자와 공자가 지금 막 실사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것이라고나 할까.

강의 태도가 위아래도 없이 방자하던 어쨌든 지금 노자 공자를 우리 앞에 살려내고 있는 것은 도올이며, 이에 맞서는 서 교수나 구름씨도 그에 기(氣)를 보태고 있는 형국이라 할 것이다. 일반의 관심과 활발한 논의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성현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한번쯤 되새기게 해주지 않는가.

옛 성인들의 말씀을 엄숙주의로만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쩌면 '도올식' '구름식' '심심풀이 땅콩식'이 그 이해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일지 모른다. 혼탁한 세상, 지금 우리 가까이 다가오는 공자와 노자를 받긴다.

김정자(자연론인·본지 논설위원)

분담금-인사문제 등 '내부 갈등'

군승단 왜 해체됐나

군승단이 임시총회에서 해체를 결의하고 한시적으로 국방부 군종실을 중심으로 한 육·해·공군 각 군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군포교의 새 활로모색이 불가피하게 됐다.

해체 배경

군승단은 표면적으로 군불교위원회 설치와 <법회와 설법>에 실린 '군복입은 군승' 기사와 관련한 포교원과의 갈등이 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법사들 간의 내용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해군과 공군법사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육군만 도와주는 틀러리가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여기에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인사문제 등에 힘을 행사하려는 일부 법사들이 해체를 선포해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그러나 선임 법사들 대다수가 해체 반대를 주장했다.

조계종 포교원도 군승단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평소 군승단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군승단을 휘어잡겠다는 일방통행식의 정책이 이런 사건을 촉발시킨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점

32년간 군포교의 주역으로 활동해온 군승단이 단 한차례의 총회로 조직을 해체한 것은 역사와 전통을 허투루침에 뒤집어 버린 행위다. 그동안 각

군 체제로 가자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몰라도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은 문제를 제기해 갑작스럽게 해체를 결정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문제의 발단은 군승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한데서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군승단 해체를 주장한 한 법사는 "우린 장교다. 장교가 왜 포교원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군법사 스스로가 조계종에서 파송된 승려가 아니라 군인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스런 발상이다.

군승단의 해체로 인해 산하단체

당분간 각 군체제 운영

'군불교위' 전환될 듯

인 대의위원회, 징병부, 선임법사회의가 동시에 해체되었기에 군내 인사문제 등 여러 일에 대한 감시·조정 체계도 사라졌다. 지금까지는 군승단이 각 군 본부 인사처에서 관장해 오던 징집, 장기, 전출 등 인사문제에 있어 조정역할을 했다. 그러나 각 군 체제로 전환되면서 각 군 본부 군종실 법사가 정기인사 때마다 인사 초안을 만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사 권한을 가진 법사들이 전횡을 일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체 유효한가

군승단칙 제 16조 7항 총회의



◇육해공군 군승단은 19일 호국 원광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한시적으로 군승단 해체를 결의했다.

“중단 간섭 벗어나려는

사전포석” 일반적 시각

권한 부분에는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상위법인 군승령 7조를 보면 '포교원은 군승의 효율적 포교활동 및 수행을 위하여 군승단을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군승단 스스로가 조직을 해체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군승단의 앞날

군승단은 그동안 여러 문제로 포교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래서 이번 군승단 해체는 중단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사전포석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각 군

체제 역시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부 정선진 법사와 이희용 육군 최고 선임법사는 22일 포교원을 방문해 빠른 시일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군승단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견을 포교원측에 전달했다. 또 포교원과 일부 선임법사들은 군승단 발전을 위해 군불교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각 군 체제의 운영이 지속되도록 유지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군승단 복원 역시 가능성이 많은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쌓여온 군법사들간의 깊어질대로 깊어진 골이 빠른 시일 내에 메워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겸직금지 풀어 인물난 해소”

조계종 기획실장 공석장기화

교육·포교원장 내정자

“전문성 없다” 반대여론

조계종이 인물난을 겪고 있다. 지난 5일 성혜스님의 사퇴 이후 20일이 넘도록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포교원장은 정원스님의 사퇴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총회에 추천할 스님을 정하지 못했다. 후임 교육원장 내정자도 알려진 스님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없다"는 반응이 있어 유동적이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최근 사회부장 양산스님에게 기획실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양산스님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실장 국장 소임을 맡은 적이 있는 스님이 기획실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부장급 소임자로서 나

이가 적다는 이유로 덮여온 상태이다.

정대스님은 새 포교원장으로 스님을 총회에 추천하려 했으나, 총회위원들 사이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스님의 교육원장 추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정대스님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이 추천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150회 임시총회가 3월 20일 열리므로 다음 달 초나 돼야 누구를 추천할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인물난의 이유를 들어 총회위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종현에 따르면, 중앙총회위원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 총무원(부, 실, 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의 주지 및 교구총회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제35조 1항)

한 스님은 "겸직 금지를 풀어 총회위원도 총무원 부 국장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94년 개혁종단 출범시 힘의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아직도 유효하다"며 겸직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총회위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풀 경우 본사주지의 총회위원 겸직도 풀어야 형평성에 맞는다. 따라서 겸직 금지 조항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김규석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mahamall.co.kr
www.yosiamun.com

총무원장 취임인사

귀의삼보하옵고

종도여러분의 법체 청안하시기를 앙축하옵니다.

소납이 지난 2월 13일 제80회 임시중앙총회에서 총무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간접적으로 종단에 참여하여 왔으나, 직접 종단운영의 책임을 맡고보니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난마처럼 얽혀있는 종단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소납같은 평범한 사람이 나서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총무원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상황 속에서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전통종단의 위상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종도 각자가 한발 물러서는 호혜와 양보의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종단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소납은 앞으로 총무원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도의 뜻을 받들고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종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사중의 제반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45년 2월 1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김법장 합장

총무원장 직인무효 공고

종단의 사정에 따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직인을 개인(改印)하였는바, 2001년 2월 14일 이전에 사용한 직인은 일체 무효임을 공고하며, 따라서 2001년 2월 14일 이후 전 총무원장 송종연 명의로 발행된 모든 문서는 일체가 무효임을 공지하오니 종도 여러분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기 2001년 2월 1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김법장 합장